

외식인력양성·웰다잉 등 장애인복지 '앞장'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4월 17일 개관 15주년

서울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주민의 경제자립도가 23~24위에 머무는 곳이다. 이에 더해 1998년 3000명을 웃돌았던 강북구 장애인 수는 15년이 지난 2013년 현재 2만 명에 달한다.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면적대비 장애인 밀집도는 전국구 최고수준이다.

이곳에서 15년간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건강, 그리고 문화생활을 책임지며 함께 해온 불교계 복지기관이 있다. 바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화).

강북장애인복지관은 1998년 3월 구립시설로 설립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한 불교계 최초 장애인복지기관이다. 200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봉은사가 운영지원사찰로서 기관을 책임운영하고 있다.

1998년 4월 17일 문을 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기치로 15년을 강북구 지역장애인들과 함께 해왔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처음부터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 내 장애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어린이·청소년·성인 등 각 계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 즉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놀이·음악·미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어나가고 있고, 성인 및 노인 장애인들이 주체적인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니어 리더(Senior leader)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박은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실장은 "복지관 이용자들도 서비스만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 갈 수



강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4월 17일 강북문화정보센터에서 개관 1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복지관 이용자들이 15주년을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장애인 밀집도 높은 지역에 위치 봉은사가 지원사찰로 책임운영 정기 평가마다 최우수기관 선정

있다는 것을 시니어 리더대학을 통해 배우게 된다"며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수지침·명상·재활수영·성인볼링·서예 등으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얻고 나눔과 배움의 삶을 배운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복지관은 장애아동 보호자들의 육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애가족들과 민속박물관, 가족유원지 등 외부로 정기 나들이를 나가고 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최초가 많다. 전국최초로 2006년 5월 초저상 CNG 셔틀 버스를 운행해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고 있으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2년 1월 1일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 실천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장애인복지관 최초로 사제지원팀을

신선했다. 또한 외식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외식사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마중물'을 최초로 운영해 장애인들의 시중 레스토랑으로의 취업을 돕는다. 70~80%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마중물' 사업은 외부 장애인복지관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뿐만 아니다. 복지관은 장애어르신과 가족의 아름다운 죽음준비를 위해 웰다잉프로그램도 최초 도입해 이용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성공 비결은 42명의 직원들이 '이용자'에 충실했다는 데 있다. 하루 평균 550명이 드나드는 이용자를 위해 복지관 자체에서 꾸준히 육구조사를 실시해 어떤 것이 장애인들에게 실질한지 해결하려 노력해왔다.

이런 결과 복지관은 '2002년 서울시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장애인복지관 분야 1위', '2002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2005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모습.

년·200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8·2011년 전국장애인복지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10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결실을 맺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개관 15주년을 맞이해 4월 25일 오후 2시 강북문화정보센터 시청각실에서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 접근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복지관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장애인 복지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중요한 실천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장애인 복지 및 사회복지 운영 전반에 걸쳐 확인한다.

관장 진화 스님은 "위탁 법인과 운영지원 사찰, 그리고 종사자들과 봉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화합해 15년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끌어왔다"며 "앞으로도 장애가족들 복지관을 통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com

"왕따·성범죄, 피해자에게도 잘못 있다"

공동복지관 조사결과, 청소년 10명 중 3명 응답

청소년 10명 중 3명 이상은 성범죄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왕따' 문제에 대해 2명 중 1명 이상의 청소년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잘못으로 기인된 문제라고 인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는 공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남화수)은 김중욱 서울시의원(공동연구원)과 함께 구로구 지역 내 중·고등학교 23개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총 23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로구 청소년 욕구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왕따"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6.4%가 왕따 문제에 대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잘못으로 기인된 문제"라고 답했다.

교사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적 조사 결과에서도 역시 전체 응답자 중 20.3%가 왕따 문제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았다.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조차도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33.65%나 됐다. 아울러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지식을

주로 인터넷상의 음란물 접촉(61.4%)과 같은 부정적인 루트로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원인은 성인들의 인식에 비해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학업(55.9%)과 진로(15.9%), 가족관계(9.4%), 또래관계(9.0%)등으로 다양하게 답했다.

또 전체 청소년 응답자 중 52.6%가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공동종합사회복지관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제고 및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새로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복지관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소집단으로 성교육 대상을 분류하고 해당 집단에 대한 성교육 수준과 내용을 개별로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접근하여 성교육의 대상 별 효과성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성적 호기심이 증폭되는 시기로 나타났는데, 임파워먼트를 적용한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성충동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아름다운동행 지원단 출범...자비나눔 힘써

아름다운동행(이장자 자승)은 4월 13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교육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아름다운동행은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후원자와 봉사자를 주축으로 지난 1년간 지원단원을 모집했으며, 서울과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62명의 단원이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35명의 지원단원이 참석했으며, 발대식에는 '아프리카 학교건립과 나눔'을 주제로 사무총장 해일 스님의 강연과 함께 아름다운동행 소개와 자원봉사 교육 및 팀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팀 프로젝트는 단

원들의 관계형성과 아름다운동행의 모금 홍보 발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색적으로 진행됐으며, 아름다운동행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들로 진행됐다.

아름다운동행 지원단 이태희 지원 단장은 "불교계의 대표 모금기관인 아름다운동행이 더욱 많은 사부대중에게 알려지고 나눔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름다운동행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108명의 지원 단원을 구성하여 나눔 문화 활성화에 앞장 설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아름다운동행 회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건지동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다문화사회 복지정책 방향' 포럼 열린다

조계종 복지재단 4월 24일 전법회관 6층서

바람직한 다문화 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4월 24일 오후 3시 전법회관 6층에서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연다.

1990년대 이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이 꾸준히 증가하여 145만 명에 이르는 다

문화사회 속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화합과 사회통합의 필요성은 화두를 넘어서 이제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제대로 인정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과 더불어 다문화사회의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미래의 대응 방안을 다룬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건강

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다문화정책의 현재와 미래 △선진국의 이민 통합정책 △다문화사회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이민자의 사회통합 등의 내용을 발제한다.

복지재단은 "이번 포럼은 다문화가족의 법적 지위와 그간 다문화가족의 복지가 어떻게 모색되어 왔는지, 그 전개과정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볼 계획이다. 나아가 향후 바람직한 다문화 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광진노인복지관, 효사랑마당 개최

6월 5일까지 복지관 일대서

어버이날을 맞이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기념행사가 열린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4월 16일~6월 5일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 및 지역사회에서 '제10회 효사랑나눔기회마당'을 개최한다.

행사는 게이트볼대회, 칠판술잔치, 출발 오감여행, 당구대회, 바자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02)466-6242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파워앰프 앰프

스테레오 앰프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피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앰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 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 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의사들을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틱이 아닙니다!

암, 치매, 각종 통증! 척추교정으로 대부분의 질병 다스릴 수 있다.

30년 통증해결사 (MBN 천기누설 18회 '척추편' 방영)

진골척추 교정법연구소 임성만 소장은 현대인들의 허리 관련 증, 손과 발의통증, 관절통 디스크, 좌골 신경통, 사고로 인한 목 통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법을 알려 주고 있어 화제다. 진골 척추교정요법은 경추, 흉추, 요추 천장관절의 미세한 비틀림에서 비롯된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오는 근관절질환과 내장질환, 피부질환, 치매의 병변들은 척추 교정법만으로 해결되며, 통증이 개선되고 몸이 편안해 지는 교정요법이다. 진골척추교정법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뼈를 만지고 굳혀 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근육이 발달한 젊은 사람일수록 치료기간이 짧고 노약자나 여성들의 경우 근육이 약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대체로 치료기간이 짧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법이라고 임 소장은 밝혔다.

척추교정분야에서 30년의 경험으로 근골격계 통증의 경우 5분 정도의 척추교정요법으로 아주 극심한 만성통증 환자의 경우라도 통증이 해결되며 치료 성공률도 99%의 성공률로 언론매체에 서도 알려진다 있다. 임 소장은 오랫동안의 연구 끝에 진골척추 교정법을 창안했다.

중, 손과 발의통증, 관절통 디스크, 좌골 신경통, 사고로 인한 목 통증을 100여가지가 넘는다. 이 밖에 위장장애, 고혈압, 간질 환, 요실금, 신경질환에도 척추교정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임 소장의 탁월한 능력은 고질적인 아토피, 습관성 유산 불 임등을 치유시켜 수많은 한의사들이 배우고 추천해 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희대 한의대 교과 과정으로 채택되었고 그 기술의 뛰어난은 대내외적으로 입증해 왔다. 이와 함께 암 통증 개선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항암치료의 부작용감소로 환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MBN TV 방송에 출연하여 척추통증에 관련한 유명 인사였던 임 소장은 척추의 형태만 보고도 통증이나 병의 유무를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

임 소장은 향후 진골척추교정법의 뛰어난 부분을 현대적이고 과학적으로 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척추질환으로는 두통, 목의통증, 어깨통증, 엉덩이통

중양일보 2013년 3월 30일 토요일자 6면
2013 POWER & TOP LEADER 기사중에서